

블랙핑크, '코첼라' 무대 뉴욕타임스스퀘어 생중계



걸그룹 블랙핑크(오른쪽 사진)의 '코첼라' 무대가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생중계됐다.(왼쪽 사진)

소속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블랙핑크가 12일 미국 대표 음악 축제인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무대를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생중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유튜브가 타임스스퀘어에서 '코첼라' 무대를 라이브로 스트리밍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블랙핑크는 지난 5일 발표한 신곡 '킬 디스 러브' (Kill This Love)로 각종 기록을 세웠다. 이 곡은 유튜브에서 24시간내 가장 많이 본 뮤직비

디오 1위에 올랐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37개 지역 아이튠스 송차트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아이튠스 송차트에서는 한국 걸그룹으로는 처음 정상을 밟았다.

한편 블랙핑크는 18일 미국 CBS의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 출연한다. '제임스 코든쇼'는 유명 방송인이자 코미디언 제임스 코든이 진행하며 심야 시간대 방영되는 유명 토크쇼 중 하나다. 톰 크루즈, 제니퍼 애니스턴, 아리아나 그란데, 고든 램지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

블랙핑크는 17일부터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6개 도시에서 북미 투어를 펼친다.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에 김기덕 감독 위촉

오는 18일 개막하는 제41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주요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에 김기덕 감독(사진)이 위촉되며 논란을 예고했다.



영화제 측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 감독이 4명으로 구성된 주요 경쟁부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주최 측은 "1996년 영화 '악어'로 데뷔한 김 감독은 현재 가장 유명한 한국의 영화감독이며, 그의 영화는 지속해서 관객과 비평가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김 감독을 소개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여배우들로부터 성범죄 가해자

로 지목돼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김 감독의 심사위원장 위촉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모스크바 영화제는 옛 소련 시절인 1935년 처음 개최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1959년부터 재개된 유서 깊은 국제영화제다. 주요 경쟁부문, 다큐멘터리 부문, 단편영화 부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영화제에선 1989년 강수연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여우주연상을, 1993년 이덕화가 '살어리랏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데 이어 2017년 손현주가 '보통사람'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영화 100년' 맞아 조지아서 한국 영화음악 콘서트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조지아주에서 한국 영화음악을 알리는 콘서트가 펼쳐진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는 1919년 10월 단성사에서 개봉한 김도산의 '의리적 구토'로 한국 영화의 역사가 시작되던지 100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주한민문화재단(대표 최은주)은 오는 2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둘루스의 인피니티 에너지 극장에서 한국 영화음악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국 영화음악 콘서트를 연다.

오페라 라보엠에서 프리마돈나를 맡았던 소프라노 박유리, 영화 '광해', '말아톤' 등 50여 편의 영화음악을 작곡한 음악감독 김준성이 이번 콘서트에 참여한다.

또 소프라노에서 가장 화려한 고음을 내는 콜로라투라 민복희와 피아니스트 최자현, 박평강의 애틀랜타 신포니아 등이 무대에 선다. 오케스트라와 솔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동안 한국영화 20여 편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다.

재단 측에 따르면 브라이언 켈프 조지아 주지사가 이번 음악회에 축하를 보냈고 주 정부 장관급과 주요 인사들이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1259호 숫자퍼즐 정답

3	6	4	2	7	9	5	8	1
1	5	7	3	6	8	2	4	9
8	9	2	4	1	5	3	6	7
2	1	6	7	5	4	9	3	8
4	8	3	9	2	6	1	7	5
5	7	9	8	3	1	4	2	6
7	4	5	1	8	2	6	9	3
6	2	8	5	9	3	7	1	4
9	3	1	6	4	7	8	5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필자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필자와 운명적인 상담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진지한 조언을 듣거나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운명적인 상담을 하기 위함인데 필자와의 상담을 장난처럼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온다. 오랜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온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자에게 상담료가 얼마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일단 필자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고 맞으면 복채를 주고 맞지 않으면 복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황당해서 건넌 이야기는 “

저희 학술원에서는 복채를 선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가 그러면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로 일어서서 행하니 사무실을 나가버리는 것이다. 필자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이번처럼 먼저 상담을 해보고 맞으면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보는 마치 식당에 가서 먼저 실컷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이 맛이 있으면 돈을 줄 것이고 맛이 없으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심보와 같고, 극장에 가서 먼저 실컷 영화를 보고 재미가 없으면 돈을 내지 않겠다는 심보하고 같은 것이다. 필자가 복채를

선불로 받는 이유는 필자에게 상담을 의뢰한 사람의 태도를 살피기 위함도 있지만, 필자를 우습게 알거나 우롱하는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필자와의 상담을 장난처럼 생각하거나 진지하지 못한 자세로 생각하고 상담을 구한다면 필자의 조언을 하찮게 여기게 되지만,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조언을 구한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진실로 중요하고 값진 조언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은 없는 법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